

# 김현승 시에 있어서 '어둠'의 現象學

—기독교적 觀點에서의 한 考察—

박 춘 덕\*

- |                         |                      |
|-------------------------|----------------------|
| I. 서론                   | 경우                   |
| II. 詩의 遍歷의 구분 문제        | 2. 신앙의 詩化—증기시의 경우    |
| III. 詩語 '어둠'과 원죄의식      | 3. 고독과 반신앙—후기시의 경우   |
| IV. 茶兄詩에 나타난 '어둠'의 제 양상 | 4. 神에로의 복귀—신앙기 시의 경우 |
| 1. 상황과 미래 지향 사상—초기시의    | V. 결론                |

## I. 서론

본고는 茶兄 김현승 시인(1913~1975)의 생애와 작품 전반을 연구 분석하여 그의 詩的 遍歷을 재검토해보고 그의 시에 미친 종교적인 사상의 특징을 살피고자 한 것이다.

그동안 김현승 연구가 단편적으로는 있어 왔다.<sup>1)</sup> 그러나 40여 년이라는

\* 경남공업전문대학 전임강사

- 1) 1. 金宗吉: 경교에의 집념, 「창작과 비평」 10호(1968. 여름) 2. 張伯逸: 원죄를 끌고가는 고독, 「현대문학」 173호(1969. 5) 3. 趙演鉉: 김현승, 「현대 한국 작가론」(문명사, 1970) 4. 洪起三: 김현승론, 「송전어문학」 제 2집(1973) 5. 김현·김윤식: 김현승, 「한국 문학사」(민음사, 1973) 6. 范大鎰: 시적고독, 「현대시학」 69호(1974. 12) 7. 金海星: 김현승론, 「한국시론」(진명문화사, 1975) 8. 崔夏林: 수직적인 세계, 「창비」 36호(1975. 여름) 9. 金允植: 신앙과 고독의 불리문제, 「한국 현대시론 비판」(일지사, 1975) 10. 金柱演: 푸터턴의 주관과 정관, 「나의 칼은 나의 작품」(민음사, 1975) 11. 鄭泰榕: 김현승론, 「한국 현대 시인론」(어문각, 1976) 12. 李盛夫: 사랑의 실체, 「창비」 39호(1976. 봄) 13. 趙載勲: 다형문학론 I, 「송전어문학」 제 5집(1976) 14. 安洙環: 다형문학과 기독교, 「시문학」 68·69호(1977. 3. 4) 15. 朴利道: 다형문학과, 「송전어문학」 제 6집(1977) 16. 李盛夫: 김현승 선생의 생애와 문학, 「고독과 시」(지식산업사, 1977) 17. 金鍾哲: 견고한 것들의 의미, 「시와 역사적 상상력」(문학과 지성사, 1978) 18. 李仁福: 김현승, 「한국 문학에 나타난 죽음 의식의 사적연구」(열화당, 1979) 19. 金禹昌: 김현승의 시. 「지상의 척도」(민음사, 1981) 20. 郭光秀: 사라짐과 영연성, 「한국 현대시문학 대제」(지식산업사, 1982) 21. 朴哲石 김현승론, 「한국 현대시인론」(학문사, 1982) 14년간에 20여 명의 연구가가 연구한 정도이고 그것도, 거의 대부분의 논문이 잡지에 실렸거나 해설서 정도였음이 이 점을 인정함.

오랜 기간 동안의 그의 詩作 활동에 비한다면 그의 시가 우리 나라의 시 연구자들에게 소외된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茶兄詩가 시 연구자들에게 왜 소외당하게 되었는가 하는 이유를 몇 가지 지적해 본다면 첫째, 그가 처음 문단에 등단한 이후 1938년 경부터 해방되기까지 7~8년 간을 완전히 창작활동을 중단함으로써 시 연구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으며<sup>2)</sup> 둘째, 초기 작품을 제외한 해방 이후의 그의 시작품들이 거의 관념적이며 철학적인 시어로 일관되어 있어 일반 독자들에게 친근감을 느끼지 못하게 했고 세째, 그의 전 생애가 기독교와 깊은 연관을 맺고 詩作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독교가 우리 문학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가 부진한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신비평의 입장을 취하는 「문학의 이론」 저자들은 문학이 포함하지 않아야 할 것은 선전 등 실리적 의도와 지식의 증진 등 과학적 의도이지, 여러 가지 관념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서 종래처럼 敎訓의 邪說이라고 비난해서는 안된다<sup>3)</sup>는 의미의 말을 하고 있다. 또한 서구의 기독교가 우리 나라에 전파된 지도 100여 년이 된 이때에 아직까지 기독교 문학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작품의 정당한 평가를 뒤로 미루는 것도 재고되어야 한다고 본다.

茶兄詩의 특징을 나타내는 心象으로는 가을, 고독, 보석, 아침, 새벽, 빛, 까마귀, 어둠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그의 종교적인 바탕이 기독교 사상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작품의 곁에 드러난 심상과 안으로 그 밑바탕에 흐르는 기독교 사상과의 연관성에 관해서 연구한 업적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다형시에 나타난 ‘어둠’의 詩語를 중심으로 그의 시적 편력을 다시 정리해 보고 그 시에 담긴 기독교 사상과 어떤 연관성을 맺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李仁福, 김현승, 「한국 문학에 나타난 죽음의식의 사적 연구」(열화당, 1979) p. 185에 의하면 다형을 1950년대의 시인으로 취급하고 있음.

3) René Wellek & Austin Warren, Theory of Literature (Penguin Books. 1956) p. 239.

## II. 詩的 遍歷의 구분 문제

한편의 시란 그 시인의 정신적인 산물이다. 그러므로 한 시인의 정신적인 흐름을 살펴 보려고 할 때 그 시인이 일생동안 발표한 전 작품을 통시적으로 관찰해 보면 이 작업은 가능해진다. 그러나 간혹 시인의 생애가 지나치게 개입되어 시인 자신의 진솔대로 그 시기를 규정지어 버린다면 그 시인의 意圖가 너무 드러나기 때문에 이른바 「의도적 오류(Intentional Fallacy)」<sup>4)</sup>를 범할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동시에 한 시인의 정신적인 흐름이란 것은 그 시인의 내면적인 심리의 변화에 따라 전개되기 때문에 어떤 시기적인 구분을 명백하게 그으면서 발전 변모해 가는 것이 아니고 유동적으로 변하면서 의식·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한 시인의 시작품의 변모과정 즉 그 시인의 정신적인 흐름을 파악하려고 할 때는 그 시인이 발표한 전 작품을 내용적인 면과 형식적인 면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구심점을 획득하는 것이 선결문제이다.

이에 본고는 기독교의 사상중에서 빠뜨릴 수 없는 原罪意識을 김현승의 시세계와 연관시켜서 그의 작품의 내용적인 면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면까지도 그의 시에 나타난 시어를 중심으로 밝혀 보고자 한다.

먼저 그의 시적 편력에 관한 구분 문제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다형은 생전에 詩전개의 구분에 관계되는 2편의 自傳的인 기록을 남기고 있지만<sup>5)</sup> 확실하게 그 시기를 구분짓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趙泰一은 다형의 詩전개를 제 1기(1930년대), 제 2기(1945 8·15 해방~1960년대 초), 제 3기(1960년대 이후)의 3期로 구분짓고 있다.<sup>6)</sup>

4) 李商燮, 「문학 비평 용어사전」(민음사, 1976) p. 224.

작가의 본래의 의도와, 작품에서 성취된 의도 사이에는 근본적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그것들을 혼동하는 데에서 작품의 이해와 평가가 잘못된다고 하였다.

5) 金顯承, 나의 문학 백서, 「월간문학」 23호(1970. 9), 굵이쳐 가는 물굽이와 같이, 「문학사상」 9호(1973. 6)

6) 文元閣刊, 「한국 문학사전」(1973) pp. 217—8에 보면, 제 1기 : 민족적 로멘티시즘, 민족적

洪起三은 前期와 後期時代로 나누어 2기로 구분짓고 있다.” 전기는 1934년 동아일보 지상에 <쓸쓸한 겨울 저녁이 올 때 당신들은>, <어린 새벽은 우리를 찾아온다 합니다>라는 작품<sup>7)</sup>을 처음 발표할 때부터 1960년대 초기로 보고, 후기는 1964년 <題目>이라는 문체의 시를<sup>8)</sup> 발표한 이후로 잡고 있다. 이때 전기시대의 다형의 시정신은 기독교 정신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겠고 후기시대로 오면 그는 오히려 인생파적인 모습으로 변모되어 이 무렵을 전후로 해서 그의 시세계는 전기시대와 다르게 神의 문제로부터 人間의 문제로, 卽物的인 감각의 세계로부터 현실참여적인 현실의 문제로 넘어 온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시집 발간으로 볼 때 전기시대의 시집은 1954년 발간된 제 1시집 「金顯承 詩抄」와 1963년 발간된 제 2시집 「擁護者의 노래」가 되겠고 후기 시대는 1968년 발간된 제 3시집 「堅固한 孤獨」과 1970년 발간된 제 4시집 「絕對孤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너무 광범위하고 시집 발간의 순서에만 치우친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시인 자신이 스스로 자기 작품세계를 구분짓는 것은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의도적인 면이 내포된 것 같아 독자들이나 시 연구자들이 이에 휘말릴 위험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음과 같은 다형 스스로의 진술로 볼 때 시집 「옹호자의 노래」는 분명히 그 앞의 작품세계와는 다른 세계를 노래했다고 볼 수 있다.

제 2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는 광주에서 서울로 이사해 온 1960년 바로 이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에 현실의 참을 수 없는 아픔들을 불러 본

---

센티멘탈리즘이 짙게 풍기는 자연예찬과 동경의 세계 노래, 자연미에 기지, 풍자, 유우머를 직조한 모더니즘의 경향. 제 2기: 의면적인 자연의 세계에서 인간의 내면적인 세계로 관심, 기독교 정신을 기초. 제 3기: 기독교적인 바탕 위에 신 인간으로서의 고독의 세계를 추구.

7) 洪起三, 김현승론, 「상황문학론」(동화출판공사, 1974) p. 181.

8) 김현승, 시인으로서의 「나」에 대하여 「고독과 시」(지식산업사, 1977) pp. 217—8에 보면 다형은 숭실전문학교 2학년 때 당시 문과 교수였던 양주봉 교수의 추천으로 동아일보 문화란에 위의 두 장편시가 발표됨으로써 문단에 데뷔하게 되었다고 술회하고 있음.

9) 홍기삼, 같은 책, p. 179.

것이 63년의 「응호자의 노래」라고 봐 주시면 될겁니다요.<sup>10)</sup>

金允植도 다형의 詩歷을 대략 3 단계로 나누고 있다.<sup>11)</sup> 첫단계는 데뷔 작품을 포함한 초기단계이고 두번째는 6·25 이후의 「응호자의 노래」 속에 포함된 가을 주제와 프라타나스 등의 단계이며, 세번째는 「절고한 고독」 「절대고독」으로 표상되는 마지막 단계이다.

이때 첫단계의 시는 주로 의적 자연과 사물에 눈을 돌린 민족적 로멘티시즘, 민족적 센티멘탈리즘으로 이해될 수 있겠고, 두번째는 내면적 靈驗世界의 추구로, 세번째는 脫基督敎的인 고독의존시대로 정리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분은 「절대고독」에서 그의 詩作이 끝나는 것으로 보고 있는 바, 다형의 문학적 自傳에 의해<sup>12)</sup> 73년 이후를 하나의 새로운 단계로 더 추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의견을 형식과 내용적인 면을 다 포용해서 종합해 볼 때 다형의 詩의 遍歷은 4 단계로 구분짓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초기 단계는 데뷔작품을 비롯한 「새벽교실」에 수록된 그의 나이 20대에 쓰여진 순수한 초기 작품들이 되겠고, 중기는 「김현승 시초」 「응호자의 노래」에 실린 작품들을 중심한 그의 시세계의 모색기라고 볼 수 있는 시기다. 후기는 그가 본격적으로 자기 자신의 고독 추구를 위해 시를 쓴 시기로 「절고한 고독」 「절대고독」이 이에 해당된다. 이 시기는 그의 시인으로서의 정신적 결정기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 4 단계로 그의 종교적인 체험을 전제로 하여 신앙기라는 단계를 설정해 보았다.

다음과 같은 그의 글은 그의 시에 미친 기독교 정신을 잘 대변해 주는 말이다.

중기까지의 나의 시는 이러한 淸교도적 입장에서 썼다. 原罪意識을 바탕으로 하여 우러나는 반성과 참회, 또는 정서와 의지를 노래하였다. 때로는 신앙과 순수와 정의에 입각한 사회적 관심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포괄적으로 말하면

10) 金柱演, 푸리턴의 主觀과 靜觀, 「나의 삶은 나의 作品」(민음사, 1975) p. 50에서 재인용.

11) 金允植, 신앙과 고독의 분리문제, 「한국 현대시론 비판」(일지사, 1975) p. 143.

12) 김현승, 나의 생애와 나의 확신, 「고독과 시」 p. 167.

신앙과 이상에 대한 긍정적 입장에서 초기와 중기까지의 시를 썼다.<sup>13)</sup>

이러한 그의 진출을 토대로 할 때 초기와 중기는 신앙과 이상에 대한 긍정적인 경향을 띤다고 볼 수 있고 후기는 계속되는 그의 진출에서와 같이 신앙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에서의 시정신이 표출되었다.

그러나 나의 나이 50대에 이르러 나의 이러한 긍정적인 청교도 사상에는 큰 변혁이 일어났다. 간단히 말하여 무조건 부모에게서 전승한 신앙에 대하여 나는 50을 넘어서야 회의를 일으키게 되고 점점 부정적인 데로 기울어져 갔다.<sup>14)</sup>

제 4 시집 「절대고독」이 1970년에 발간됨으로써 그의 시정신은 일단 김현승 특유의 고독 추구로서 끝나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1973년 3월에 그는 고혈압으로 졸도하는 사건을 당하게 된다. 이 사건이 있는 후 그의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는 다시 변모하게 된다.

이러던 중에 나는 지금으로부터 3년전의 어느 겨울에 갑자기 쓰러지고 말았다. 나의 느낌으로는 죽었던 것이다. 그러나 며칠만인가, 얼마만에 나는 다시 의식을 회복하고 살아나게 되었었다. ……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의 마지막 기회를 주시려고 이 어리석은 나를 살려 놓으신 것이다. ……나는 이날 이후 시를 버릴지언정 나의 구원인 나의 신앙을 다시금 떠날 수는 없다. 이 신념이 변치 않기를 나는 오늘도 나의 신인 하나님께 간곡히 빌고 있다.<sup>15)</sup>

이제 시인이 시를 버리고 믿음을 택할 정도로 그는 독실한 신앙인이 되었던 것이다. 철저한 기독교 신자로 변해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절대고독」 이후의 시집 「날개」에 실린 작품들과 그가 他界한 이후 나온 제 5 시집 「마지막 지상에서」의 1부 작품들은 후기 때까지의 그의 시정신과 판이하게 다른 신앙을 노래하고 있다. 이 시기를 필자는 신앙기로 제시함으로써 4단계로 그의 시적 편력을 규정짓고자 한다.

이상의 구분을 그의 시집 발간 연대와 그의 연령을 참고로 하여 도표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도표 1>

13) 김현승, 나의 고독과 나의 시, 앞의 책 p. 205.

14) 앞의 책, p. 206.

15) 앞의 책, p. 167.

〈도표 1〉

期	시 집 이 름	간행년도	연 령
초 기	<sup>16)</sup> 새벽 교실	1934~8	20대
중 기	김현승 시초	1954	40대
	옹호자의 노래	1963	50대
후 기	견고한 고독	1968	50대
	절대 고독	1970	60대
신앙기	<sup>16)</sup> 날 개	1974	60대 이후
	마지막 지상에서	1975	

### Ⅲ. 詩語 '어둠' 과 원죄의식

이제 이러한 시적 편력 4단계의 흐름을 詩語로써 증명해 보고자 한다.

시어(Poetic Diction)란 시인의 언어선택이다. 그것은 한 시인의 개성과 사상은 물론 그 시의 특질을 알 수 있는 가장 표면적인 요소다. 그리고 현대 철학자들이나 언어학자들의 언어관에 의하면 철학적 사유든 시적 사유든 모든 사유는 언어와 함께 작용하며 언어없이 여하한 사유도 불가능하다고 한다. 즉 언어와 의식을 결합시키고 있다.<sup>17)</sup>

다음 도표는 다형이 평소 그의 시작품 속에 즐겨 사용한 시어들을 그의 詩全集과 遺시집에<sup>18)</sup> 수록된 총 237편<sup>19)</sup>의 시 가운데서 필자의 필요에 의 해 몇몇을 추려내어 전체 시편 가운데서의 사용 빈도수<sup>20)</sup>를 나타낸 표이

16) 시집은 간행되지 않고 1974년 간행된 김현승 시 전집에 「새벽교실」로 묶어서 초기의 작품 16편이 실려 있음. 마찬가지로 「절대고독」 이후 「마지막 지상에서」 출간 사이의 작품 43편이 「날개」로 묶어서 실려 있음.

17) 金梭五, 「시론」(문장사, 1982) p. 61

18) 김현승, 「김현승시전집」(관동출판사, 1974) 「마지막 지상에서」(창작과 비평사, 1975)

19) 본래 「김현승 시전집」에는 옹호자의 노래(69편), 견고한 고독(36편), 절대고독(38편), 날개(43편), 새벽교실(16편) 등 총 202편과 「마지막 지상에서」(54편) 합하여 전체 256편의 시가 실려 있지만 「마지막 지상에서」의 2부와 3부의 시 가운데 기념식나 행사시 또는 발표연대가 누락된 시 19편은 연구대상에서 제외시켰고, 발표연대가 표시된 시들은 「시전집」의 각 시집에 포함시켰던 바 조사대상으로 된 시는 237 편이 되었다.

20) 시에 사용된 모든 시어를 다 뽑아내는 방법도 있으나 필자는 전체 편수에 대한 각 시어

<도표 2>

詩 語	전편수	期				계	순 위
		초 기	중 기	후 기	신앙기		
21) 밝 음	음	16	74	78	69	237	1
		9	45	44	29	127	
21) 어 들	들	56%	61%	56%	42%	54%	2
		15	49	21	39	124	
술 품, 눈 물		94%	66%	27%	57%	52%	3
		2	35	23	19	79	
흙(땅), 무 덩		13%	47%	29%	28%	33%	4
		4	20	31	20	75	
영혼, 생명, 신앙		25%	27%	40%	29%	32%	5
		0	30	20	9	59	
보 석(순금)		41%	26%	13%	25%	6	
		2	11	21	14		48
아 침, 세 벽		13%	15%	27%	20%	20%	7
		6	12	8	5	31	
가 울		38%	16%	10%	7%	13%	8
		1	14	3	10	28	
영 원		6%	19%	4%	14%	12%	9
		4	13	8	3	28	
고 독		25%	18%	10%	4%	12%	10
		0	2	12	0	14	
			3%	15%		6%	

다<도표 2>

의 사용 빈도수를 알기 위해, 연구하려는 시어가 한편의 시에 여러 번 중복되거나 한번 사용되거나 간에 전부 한번으로 취급했다.

21) <밝음>의 의미와 유사한 단어, 즉 사랑, 빛, 희망, 기쁨 등을 다 포함시켰다. 마찬가지로 <어둠>과 유사한 단어, 즉 밤, 황혼, 까마귀, 저녁, 그늘, 그림자 등을 다 포함시켰다.

〈도표 2〉를 참고로 다음 몇가지 사실을 추출해 낼 수 있다.

1. 〈어둠〉과 〈밤〉의 시어가 전체 시의 50% 이상의 작품에 나타났다는 것은 다형시가 기독교의 원죄의식을 항상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

2. 〈어둠〉의 시어가 초기와 중기에는 많이 등장하고 후기에는 드물게 나타났다는 것은 그의 신앙의 이력을 잘 나타내 준다. 즉 초기와 중기에는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시를 썼지만 후기에는 신앙을 떠난 상태에서 시를 썼다는 의미다.

3. 초기에는 〈아침〉 〈새벽〉 〈영원〉 등이 많이 나타나므로 상상적인 동경의 세계를 노래하고 민족을 위한 희망의 사상을 고취했음을 알 수 있다.

4. 중기에는 〈슬픔〉이나 〈눈물〉을 詩化하여 〈신앙〉적인 〈가을〉의 기도의 시가 많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후기에는 단단한 〈보석〉 같은 〈고독〉의 세계를 추구했음이 역력히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 시어 〈어둠〉과 기독교 사상과의 연관성을 증명하기 위해 〈어둠〉의 신학적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신약에서 〈어둠〉(σκότος, darkness)의 의미는 시간적 의미와 윤리적 의미로 사용되어 있지만, 특히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관련해서는 윤리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점은 특히 바울 서신에서 더욱 분명하다.<sup>22)</sup>

어둠은 〈빛〉, 혹은 〈밝음〉에 대한 상대적인 의미로 사용되었고,<sup>23)</sup> 지옥을 어두운 곳으로 표현하기도 했다.<sup>24)</sup>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으로, 사망과 영원한 형벌에 대한 승리자로, 그를 따르는 것이 빛 가운데의 삶으로 표현됨으로써, 어둠이 〈죄〉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다.<sup>25)</sup>

22) Gerhard Friedrich, ed: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VII (Wm. B. Eerdmans Pub. Co. 1971) pp. 423-445.

23) 신약성경, 요한복음 1:5 "빛이 어둠에 비취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24)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2:4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렁이에 두어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였으며"

25) 신약성경, 요한일서 1:5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신약성경, 요한복음 8:12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특히 바울 서신에 있어서 바울은 <어둠>이란 용어를 더욱 윤리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다.<sup>26)</sup> 그리하여 거듭나지 못한, 육에 속한 생활을 어둠으로 표시하고, 이들을 어둠에 속한 사람, 혹은 어둠의 아들들이라고 말했다. 바울의 용어(terminology)는 이원론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흑자는 바울의 이런 논리적인 구조를 헬라철학의 영향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sup>27)</sup> 바울은 항상 빛과 어둠, 새사람과 옛사람, 빛의 아들과 어둠의 아들 등으로 상대적 의미로 사용했다.

그러므로 <어둠>이란 의미는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본성에 대한 윤리적 용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원죄를 지닌 타락한 인간, 인간의 죄의식 등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모습을 표현한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다형시에 나타난 <어둠>은 기독교의 원죄 의식과 깊은 연관성을 맺고 존재하는 것이다.

이제 다형의 시적 변모과정을 각종 도표로 작성하고 또한 그의 시어를 기독교 사상과 연관성을 맺고 살펴볼 때 그의 작품 속에는 일관된 정신적인 흐름이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다. 즉 초월자인 神으로부터 태어난 한 피조물인 인간이 그 神의 영역을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치다가 다시 그에 제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感得할 수 있다. 이것은 다형이 처음부터 맹목적으로 종교에 순종했다기 보다는 한번쯤 거부와 반항을 해보고 다시 신앙으로 되돌아가는 참된 기독교 시인이었다<sup>28)</sup>는 것을 증명한 일이기도 한 것이다.

#### IV. 茶兄詩에 나타난 '어둠'의 제 양상

##### 1. 상황과 미래 지향 사상——초기시의 경우

다형의 초기시는 그의 詩全集에 실려있는 「새벽교실」 속의 16편의 작

26) 주 22)의 책 p. 441

27) Jeremias, J.: 『New Testament Theology』 (Scribner's & Sons, 1971) p. 229.

28) 梁汪容, 시와 기독교의 만남에서의 몇 문제 「한국 근대시 연구」(삼영사, 1982) p. 283에 의하면 二流詩로서의 기독교시라는 용어를 인정하고 있는데, T.S. Eliot의 문학관에 실패했던 다형이 2류시의 개념이 싫어, 굳이 기독교 시인이 안되려고 그 돌파구로써 <고독>을 추구했는지도 모른다.

품을 말한다. 이 시들은 「未熟하고 거친 대목이 分明히 없지 않지만, 나는 이러한 未熟에서 出發하여 오늘에 이르렀음을 거울삼기 위하여」<sup>29)</sup> 수록한다고 본인이 밝힌 바와 같이 시작품으로는 秀作이라고 볼 수 없는 미숙한 것들이지만 그의 시정신의 근원을 살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렇지요, 東方으로 귀양간 젊은이들의 情熱의 會함이 있는 날/아! 저 하늘을 바라보세요./黃金窓을 단 검은 汽車가/어둡고 두려운 밤을 피하여 黎明의 나라로 화살같이 달아납니다./그늘진 山을 넘어와 曠野의 詩人—검은 까마귀가 城邑을 지나간 후/어두움이 大地에 스며들기 전에/列車은 安全地帶의 輝煌한 메트로 폴리스를 향하여/黑暗이 切迫한 北部의 雪原을 脫出한다 하였읍니다/그러면 여보! 이날 저녁에도 또한 밤을 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를 쫓아 버린 검은 狂風이 눈보라를 날리며 凱旋行進을 하고 있습니다그러!  
/불빛 어린 窓마다 구슬피 흘러 나오는 悲戀의 頌歌를 듣습니까?/쓸쓸한 저녁이 이를 때 이 땅의 居民이 부르는 遺傳의 노래입니다./지금은 먼 이야기, 여기는 東方/그러나 우렁차고 빛나던 해가 西쪽으로 기울어지던 날/오직 한 마디의 悲歌를 이 땅에 남기고 先人の 발자취가/어두움 속으로 永遠히 사라졌다합니다./그리하여 눈물과 한숨, 또한 내어버린 웃음 위에/漂浪의 歷史는 흐르는 세월과 함께 쓰여져 왔다 합니다.

—<쓸쓸한 겨울 저녁이 올 때 당신들은>—(방점: 필자)

이 작품은 1934년 5월 동아일보 지상에 발표된 그의 소위 문단 데뷔작이다. 5연 53행으로 된 長詩로써 호흡이 길고 漢字語, 관념어가 눈에 많이 띄며 또 자연을 대상으로 한 시어를 많이 구사한 작품이다.

趙載勳은 이러한 다형의 초기 작품세계를 지적하여 「자연물 대상으로 한 무한한 想像과 淸純한 情緒, 약간 感傷的이며 誇張的인 浪漫風의 경향, 그리고 言語의 節制를 加하지 않는 수다스러움——한 말로 自然과의 親和를 통한 浪漫主義時代라고 할 만하다」<sup>30)</sup>고 요약했는데 자연을 主潮로 한 그 당시 시대상의 詩風에 잘 어울리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29) 김현승, 「김현승 시집」 p. 6 序文.

30) 趙載勳, 다형 문학론 I 「중천어문학」 제 5집 (1976) p. 170.

정치적으로 1930년대는 일제의 병참화가 본격화되는 때이다. 그러므로 그 당시 문학에서 자연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비참한 현실세계를 떠나서 인간의 매가 묻지 않은 순수하고 깨끗한 아름다운 저 피안의 세계를 지향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즉 나라를 빼앗긴 울분을 자연에 대한 사랑으로 美化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이 시가 「합축하고 있는 의미는 주권을 빼앗긴 불행에 처한 민족적 현실을 자유롭게 사물을 바라보며 위안을 구하는 自然美에 대한 예찬과 동경으로 뒤바뀌 놓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어둠>에 관계되는 시어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기독교의 경전인 신·구약 성경에는 빛과 어둠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sup>31)</sup> 즉 어둠이란 이 현실사회의 부정한 것 다시 말해서 당시 우리 민족의 불행한 처지를 상징한 것이라고 볼 때 <어둠>이란 시어가 다형의 초기시에 많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러한 어둠에 처해 있는 우리 민족의 아픔, 불행, 억울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그것을 표현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현실을 단지 표현한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밝은 미래 즉 <새벽>과 <아침>이 우리를 찾아온다고 노래했던 것이다.

새까만 하늘을 암만 쳐다보아야 어딘지 모르게 푸르러니／그러면 그렇지요,  
그 우렁차고 光明한 아침의 先驅者인 어린 새벽이／벌써 희미한 초롱불을 들고  
四方을 밝혀 가면서／거친 산과 낮은 들을 걸어 오고 있었읍니다그려!／  
東편에선 언제나 가장 높은 채하는 험상궂은 산봉우리가／아직도 해를 가리우며  
내어 놓지를 아니하는데／그 양전성 없는 캄새들은 못 기다리겠다고 반듯한  
줄을 훌으리고／그만 다들 날아가 버리겠지요.／그러나 그 차고 넘치는 햇  
발들이 四方으로 빠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 새벽은 우리를 찾아온다 합니다>— (방점: 필자)

우리는 이 시가 일제치하의 어둡고 긴 밤에서 광명한 아침을 기다리고,

31) 「구약성경」, 창세기 1:3—5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신약성경」, 요한복음 3:19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침은 반드시 온다는 확신과 열망을 상징한 작품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다형의 초기 시편들이 표현방법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현대적으로 사물을 형상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李盛夫는 당시 정 지용의 표현상의 혁신, 김 기림을 중심한 모더니즘의 비평성의 영향을 받은 것<sup>32)</sup> 같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그 암전성 없는 참새들> 같은 표현에서 모더니즘의 한 속성이기도 한 해학과 기지의 수법을 볼 수 있다. 30년대의 시들이 대부분 구미의 영향을 받은 창작기술의 발전과 주지적 경향으로 흘렀음을 인식할 때 이러한 표현상의 기법은 무난한 편이다. 그러나 시의 내용에 있어서 다형은 감성보다는 이성율, 눈물보다는 웃음을, 사라져 가는 것들의 아름다움보다는 새로 태어나는 것들의 미덕을 더 중하게 여겼다는 사실이다. 즉 앞의 시에서 <어둠, 황혼, 밤> 등은 우리 민족의 슬픔과 비극을, <새벽, 아침, 여명> 등은 광복의 가능성을 상징하고자 의도했던 것 같다.

구체적으로 초기시에 나타난 민족의 미래에 대한 상징들을 찾아보자.

「힘있고 새로운 歷史가 光明한 그 아침에 쓰여진다 합니다」—「어린 새벽은 우리를 찾아온다 합니다」—「아아 自然은 왜 이다지 아름답습니까?」—「아침과 黃昏을 데리고 갈 수 있다면」—「우리들이 저 푸른 海岸으로 뛰어갈 아침이란다」—「아침」—「새벽은 위대한 보물을 저 들에 숨겨놓고 밤의 슬픈 이야기를 계속하는 우리를 부른다 합니다」—「새벽은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아 얼마나 아름답고 석색한 당신들의 새벽입니까!」—「새벽교실」

이와 같이 초기시의 대부분이 <아침>과 <새벽>을 회구하는 미래 지향적 사상을 갖고 있다. 이러한 조국 광복을 염원하는 미래 지향적 사상은 바로 기독교 정신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찰해 볼 때 초기 茶兄詩에 나타난 근원적인 사상은 철저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것이었다. 시집 「새벽교실」에 수록된 16편의 시중에 15편의 시에 <어둠>이나 그에 준하는 시어인 밤, 황혼, 까마귀, 박쥐, 밤비, 검은 기차, 어두운 땅, 새까만 하늘, 검은 풀짜기, 검은

32) 李盛夫, 사랑의 실체, 「창작과 비평」 39호(1976 봄) p. 245.

제복, 검은 장벽, 검은 머리털 등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다형의 의식구조 속에 기독교의 원죄의식인 이 〈어둠〉의 사상이 얼마나 투철했던 가를 엿볼 수 있는 좋은 증거가 되는 것이다.

## 2. 신앙의 詩化 ——중기시의 경우

다형은 1938년 이후부터 해방되던 1945년 까지 7~8년 간을 개인적으로는 위장병의 악화, 신사 참배 거부문제로 인한 투옥, 延命을 위한 생활난 등의 이유로, 당시의 시대적 환경으로는 확대되는 전쟁의 상황과 일제의 문화 말살 정책으로 인해, 꿈에서도 잊지 못하던 詩作을 중단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의 중기시는 해방 이후에 나온 1954년에 간행된 제1시집 「김현승 시초」 1963년에 간행된 제2시집 「옹호자의 노래」에 수록된 작품들을 의미한다.

이 시기에 나타난 그의 시세계에 대한 생성적 변천과정은 「① 自然遍歷에서 얻은 감각과 印象의 表白. ② 個性이 소유한 自我의 內的 苦惱의 暴露. ③ 現實的 文明·社會·民族에 대한 詩人으로서의 態度와 주장과 信念」<sup>33)</sup>이라고 구분할 수 있다.

이 시기는 더 세분하여 분석해 보면 초기시에 보였던 그의 민족과 자연에 쏟았던 애정이 평소 좋아했던 계절인 가을의 자연 속에 차츰 심화되어 가는 것을 엿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神의 구원을 추구하는 자아의 고뇌의 몸부림을 언어로 승화시켜 보려는 의도와, 기독교적인 인식에서 볼 때 부정 부패가 난무하는 현실적인 이 사회를 바라보는 비판적인 안목이 동시에 형성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주로 신앙시에 국한하여 언급해 보겠다.

가을에는／祈禱하게 하소서……／落葉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謙虛한 母國語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肥沃한／時間을 가꾸게 하소서

33) 張伯逸, 원죄를 끌고가는 고독, 「한국 현대 문학론」(관동출판사, 1978) p. 385.

가을에는／호우로 있게 하소서……／나의 영혼,／굽이치는 바다와／百畝의 골짜기를 지나,／마른 나무 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가을의 祈禱〉 전문—

이 작품은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가을의 詩遍들을 연상하게 하는 기도의 시로서 지금도 여러 사람에게 애송되고있는 작품이다. 제 1연의 〈기도〉와 2연의 〈사랑〉과 4연의 호우로 있는 〈고독〉이 삼위일체가 되어 조용한 가을날에 깊은 사색에 빠져있는 한 시인이 자연에 동화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金海星은 이러한 점을 지적하여 「感像을 배경하고 知性的인 詩觀을 自己化하는 데 노력한 작품」<sup>34)</sup>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여기서 다형의 지성이란 〈검허한 모국어〉로 울리는 마음의 기도가 곧 이 시인의 생활과 신앙의 일체화 속에서만이 이룩될 수 있다는 진실한 神과의 대화하는 소리 바로 그것인 것이다. 이러한 주정적이기 보다는 주지적인 면을 지적하여 다형의 정성적 바탕을 서구의 모더니즘과 깊은 관련을 맺는 의견도 있다.<sup>35)</sup> 소박한 가을의 낭만을 그냥 吟風咏月 식으로 노래하기 보다는 청결하고도 다양한 감각의 의지를 중요시한 詩風에서 그러한 일면도 엿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더러는／沃土에 떨어지는 작은 生命이 고저……／흙도 티도,／금가지 않은／나의 全體는 오직 이뿐!／더욱 값진 것으로／드리라 하울 제,／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도 오직 이뿐!／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을 보시고／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

—〈눈 물〉 전문—

이 시는 다형이 지금까지 관심을 가져왔던 자연과 의제의 세계에서 떠나 「자연으로부터 인간으로, 의제로부터 내면의 세계로 관심을 돌린」<sup>36)</sup> 시기에 쓰여진 작품이다.

金揆五는 이 작품에 대하여 「결국 이 작품의 테마는 영원한 가치로서의 생명의 순수성이다. 그리고 이것은 시인의 인생에 대한 태도」<sup>37)</sup>라고 평하

34) 金海星, 김현승론, 「한국시론」(진명문화사, 1975) p. 260.

35) 이성부, 김현승 선생의 생애와 문학 「고독과 시」 p. 360.

36) 김현승, 굽이쳐 가는 물굽이와 같이 「문학사상」 9호(1973. 6) p. 249.

37) 김준오, 「시론」, p. 108.

면서 이미지 전달에 성공한 작품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눈물>이라는 일 반적으로 슬픔을 환기시키는 통념을 깨뜨리고 그것을 가장 순수한 생명으로 표현하여 독자로 하여금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관념을 가지게 한 그의 이미지 표현력이 뛰어난 작품이라는 것이다.

다형 자신도 이러한 「시인의 인생에 대한 태도」라는 평에 동의라도 하듯이 이 작품을 쓰게 된 동기와 주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시는 내가 그렇게도 아끼던 나의 어린 아들을 잃고 나서 애통하던 중 어느 날 문득 얻어진 시다. 나는 내가슴의 상처를 믿음으로 달래려고 그리한 심정으로 썼다. <인간이 神 앞에 드릴 것이 있다면 그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변하기 쉬운 웃음이 아니다. 오직 정직하고 진실한 눈물이 있을 뿐이다. 이 地上에 오직 썩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神 앞에서 흘리는 눈물뿐일 것이다>라는 것이 이 시의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시는 눈물을 좋아하는 나의 타고난 氣質에도 잘 맞는다.<sup>38)</sup>

다형의 청교도적인 신앙의 배경을 무시해 버리고 <눈물>을 읽는다면 우리는 감상주의나 즉흥적인 서정시 정도로 이 작품을 평가할 것이다. 그러나 이 시인의 기독교에 기초한 정신적 배경과 이 작품을 쓰게된 직접적인 동기를 연결시켜서 감상할 때 우리는 이 작품이 신앙적인 충동과 참회, 인간적인 슬픔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는 우수한 작품임을 알게 된다.

성경 상식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기독교인이라면 <눈물>이라는 이 시에서 애지중지하던 자기 자식 「이삭」을 제물로써 神에게 바치는 단계에까지 이르는 「아브라함」의 신앙<sup>39)</sup>을 엿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구약성경의 「예레미야 애가」의 슬픈 노래를 연상하게 될 것이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고도다.<sup>40)</sup>

쳐너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 내 눈의 흐르는 눈물이 /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함이여 /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 살

38) 「문학사상」 9호, p. 249.

39) 구약성경, 창세기 22장의 내용을 참조할 것.

40)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1:2.

피시고 돌아 보시기를 기다리는 도다.<sup>41)</sup>

(행 배열, 방점 : 필자)

이와 같은 哀歌에서 우리는 죄짓고 버림받은 자의 기원이 절실하게 詩化되어 있음을 알게 되는 데 다형도 역시 <눈물>에서 어린 자식의 죽음을 자신에게 내려진 형벌이라고 생각하며 그 형벌을 달게 받는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의 순응의 美學을 보여주고 있다. 즉 詩作 동기에 비추어 볼 때 그는 비탄이나 절망의 시를 쓴 것이 아니라, 순수한 詩的 美學을 지향하되 참회의 신앙적 心像을 역력히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 행인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에서 보이는 <눈물>은 결국 인간에게 하나님 앞에서 사죄할 수 있는 知覺을 주신데 대한 感服의 눈물ियो, 復活의 정신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런 뜻에서 生命의 경진성을 神에게 노래했다<sup>42)</sup>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다형은 개성이 소유한 자아의 내적 고뇌의 폭로를 하면서도 그 시정신의 근원에 흐르고 있는 것은 기독교 사상인 것을 이러한 슬픔을 詩化한 작품으로도 나타내었던 것이다.

이러한 작품 해설에서 살펴볼 때 결국 그는 철저한 기독교 신앙인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셈인데 자기 스스로도 이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긍정하고 있다.

내가 특히 눈물이나 슬픔과 같은 그늘진 면들을 통하여 인생의 가치를 구하고 그것의 深化를 의욕하는 것은, 십자가에 의한 속죄의 사상과 고통의 甘味를 형수하는 기독교의 진지 열렬한 신앙을 조금이라도 체득하여 보려는 母胎로부터의 신앙이 있기 때문이다.<sup>43)</sup> (방점 : 필자)

여기서 <그늘진 면>이란 <어둠>과 통하는 점이 있는데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다형시에 나타난 <어둠>이란 시어는 바로 기독교의 속죄 사상, 더 나아가서 골고다에서 피흘리며 죽은 예수가 우리 모든 세상 만민들의

41)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3:48-50.

42) 朴利道, 다형문학고, 「송전어문학」 제 6집 (1977) p. 121.

43) 한국 시인 협회편, 「나의 시 나의 시론」(신용출판사) p. 78.

원죄를 위해 죽었다는, 그 원죄의식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 3. 고독과 반신앙——후기시의 경우

다형의 후기시는 1964년 <제목>이라는 시를 발표한 이후부터 1968년에 간행된 제 3시집 「전고한 고독」, 1970년에 간행된 제 4시집 「절대고독」에 수록된 작품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확연한 구분은 그의 다음과 같은 진술이 끼치는 바 영향이 크다.

시 <제목>을 계기로 하여 나의 시세계에는 적지않은 변화가 일어났다. 나는 중기까지 유지해 오던 단순한 서정의 세계를 떠나, 신과 신앙에 대한 변혁을 내용으로 한 판념의 세계에 발을 들여 놓았다……정신상의 문제로는 나는 인간으로서 새로운 고독에 직면해야 했다.<sup>44)</sup>

즉 그는 <제목>을 분수령으로 하여 지금까지 神에게 의지해 오면서 그의 詩心을 불태웠던 것을 180° 전환하여 神에 대한 懷疑와 否定이 지배하게 되었고 무엇을 믿는다거나 누구에게 의존함이 없이 스스로의 전고한 고독의 세계를<sup>45)</sup> 이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떠날 것인가/남을 것인가//나아가 화목할 것인가/꽃김을 당할 것인가//波濤가 될 것인가/가라앉아 眞珠의 눈이 될 것인가//어떻게 할 것인가/끝장을 볼 것인가/죽을 때 죽을 것인가//무덤에 돌 것인가/무덤 밖에서 뭇줄 것인가

—〈題目〉—

14연으로 된 이 시는 각 연마다 상반되는 두 개의 질문을 던져 28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 질문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데에 문제가 있다. 즉 神을 추구하다가 끝내는 神의 존재를 의심하는, 자기 회의에 빠지고 마는 神과 人間 사이의 부단한 추적으로 형성되어져 있는 작품이다.

<제목>이란 시는 詩的 기교나 美意識의 차원에서 볼 때 성공한 시라고

44) 「고독과 시」 pp. 208—209.

45) 전고한 고독, 고독, 고독의 風俗, 群衆속의 고독, 고독의 純金, 절대고독, 고독의 끝, 고독한 싸움, 고독한 理由, 이러한 시 제목만 보아도 그의 고독이 얼마나 투철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는 볼 수 없다. 그러나, 다형 본인은 자신의 心的인 변화의 측면을 보여 주는 주목할 시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가? 이제 청교도적인 다형의 사상이 50대에 이르러 큰 변혁을 겪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신앙적 세계를 시로 표현하던 시정신이 이제 神에 대한 회의로 그 詩的 오브제가 바뀌게 됨으로써 그가 추구해오던 절대가치가 변화를 일으킨 것이다. 즉 다형의 시정신이 신앙의 詩化에서 고독의 詩化로 변신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 이런 정신적인 변화가 어디에 연유한 것인가? 그 이유는 자신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 논리적으로 타당성을 갖는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唯一神이 아닌 것 같다. 만일 유일신이라면 어찌하여 이 세상에는 다른 신을 믿는 유력한 종교가 따로이 있겠는가? 그리고 十戒諭에는 어찌하여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공경하지 말라> 하였을까? 그것은 다른 신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표현할 수 없는 말이 아닌가? 또 기독교의 一元論은 악마의 영원한 세력인 지옥을 인정함으로써 결국은 二元論이 되고 만다. 그리고, 일원론이 성립하려면 善의 책임과 함께 惡의 책임도 창조주에게 지워져야 한다.<sup>46)</sup>

다형 나름대로의 논리적인 모순에 회의가 일어났기 때문에 정신적인 변화가 왔다는 이러한 견해는 神學的 입장에서든 문제가 되겠지만 시인의 神에 대한 직관적 회의에 의한 것임을 상기할 때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계속되는 그의 말은 현실적인 이유를 드러낸다.

내가 얻은 결론은 교인들의 생활과 마음가짐이 일반 사회인의 그것과 다름이 없다는 사실이다. 특유한 형식을 지키는 면에서만 다를 뿐 실생활면에서는 靈 중심의 교인들이 肉 중심의 사회인과 다를 것이 전혀 없다. ……나는 이렇게 신과 기독교에 대한 회의를 일으키게 되면서, 점점 인간에 대한 이해와 동정으로 기울어지게 되었다. ……나의 관심은 점점 천국에서 지상으로, 신에서 인간으로 갈등을 느끼고 있었다.<sup>47)</sup>

이러한 다형의 기독교 神觀을 朴哲石은 차라리 반기독교적이라고 말하

46) 「고독과 시」 p. 206.

47) 앞의 책 pp. 207-208.

면서 다형이 기독교의 영적 체험을 관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점을 파헤쳐서 信心과 철학을 혼돈하고 있다<sup>48)</sup>고 극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결국 다형은 神의 세계가 아닌 자기만의 想像세계인 <孤獨>이라는 세계를 창조하게 된다.

폴·틸리히는 회의와 믿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신앙과 회의는 본질적으로 서로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니다. 신앙은 그것 자체와 그것 자체 안에 있는 회의 사이의 계속되는 긴장이다.<sup>49)</sup>

인간이 느끼는 회의, 즉 고독은 비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더욱 신앙적인 것의 접근을 위한 불가분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다. 진실한 믿음이란 끊임 없는 회의와 갈등의 고독속에서 창조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키에르케고르의 사상과도 일치한다.

그런데 다형의 고독은 앞의 글에서 언급된 그의 논리대로 친다면 神을 잃은 고독이다. 즉 인간을 고독한 존재로 규정한 키에르케고르의 고독과는 다르다.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이 육신의 죽음보다 더 무섭고 허무를 느끼는 위기의식에 빠지게 되는 것을 고독이라고 규정하고 이 고독을 죽음이란 언어로 상징화 하여 죽음을 원해도 죽을 수 없다는 절망의 파라독스를 얘기함으로써 이것이 그의 「죽음에 이르는 병」<sup>50)</sup>에서 말하는 절망이 되겠는데 다형의 고독이란 이 절망에 대한 해석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즉 키에르케고르의 절망은 영원성에 대한 절망이라면 다형의 절망은 神 자체에 대한 절망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므로 키에르케고르의 고독은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고독이었지만 다형의 고독은 구원에 이르는 고독이 아니라 구원을 잃어버리는, 구원을 포기하는 고독이다. 다형의 고독은 수단으로서의 고독이 아니라 순수한 고독자체일 뿐이다.

그러면 여기서 후기시에 많이 나타나는 <고독>과 <어둠>과는 어떤 관계

48) 朴哲石, 김현승론, 「한국 현대 시인론」(학문사, 1982) p. 200.

49) 폴·틸리히, 정진홍 역, 「기독교와 다른 종교」(기독교서회, 1969) p. 148.

50) 키에르케고르, 孫獻駿 譯: 「죽음에 이르는 병」 삼성판 세계사상전집 19.

가 있는지 살펴보자. 앞의 <도표 2>에서 보듯이 후기시에 오면 <어둠>이란 시어는 줄어들고 대신 <고독>이란 시어가 늘어난다.

李仁福은 다형이 자신의 철학을 말할때, 죽음만이 인간의 전 의미라고 결론짓는다<sup>51)</sup>고 말하고 있다. 죽음의 이미지는 다형의 후기시 가운데 많이 나타나 있다. 이러한 죽음은 어둠의 이미지와 통할 수 있고 다형이 추구한 고독으로 연결됨으로서 더 나아가 다형이 추구한 고독은 결국 茶兄 시에 나타난 어둠과도 그 연관성을 맺게 된 것이다.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결국 인간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 原罪의 식 가운데 항상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누리기 위해 김 현승이 고독을 느꼈다고 볼 때 다형이 추구한 이 고독은 기독교의 原罪의식인 어둠과도 연관성을 맺게 되는 것이다.

#### 4. 神에로의 복귀 ——신앙기 시의 경우

다형의 신앙기시는 1970년의 「절대고독」 이후 他界하기 까지의 작품으로 볼 수 있는데 그의 미간행 시집인 「날개」 시집(김 현승 시전집에 수록됨)과 제 5시집인 「마지막 지상에서」의 제 1부에 속하는 시를 말한다.

다형은 1975년 3월 고향압으로 졸도하여 수개월간 死境을 헤맨 일이 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 다형의 문학세계는 처절한 고독의 추구에서 다시 神에로 귀의하여 기독교 신앙의 경향으로 기울어진다.

내가 병후에 첫째로 해야 했고 한 일은 나의 문학관의 개조와 혁신이었다. 나는 목사의 아들인 시인이면서도 한번도 우리 사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이나 잡지에 신앙 중심의 시를 발표한 일이 없다.……나는 이 사실을 참회하였다. 내가 받은 시제는 어디로부터 받은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지상의 어느 누가 내 가슴과 머릿속에 넣어 준 것은 아니고 넣어 줄 수도 없다.<sup>52)</sup>

지금까지 철저한 기독교적 환경에서 성장하여 기독교 사상이 몸에 밴 다형시인으로서 이러한 변화는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회의와 부정적

51) 이인복, 같은 책 p. 195.

52) 「고독과 시」 p. 163.

사유로서의 神은 어느 듯 사라지고 절대존재적인 기독교 사상만이 다형의 문학세계를 지배함으로써 말미암아 가장 확대되고 비판없이 형상화되는 신앙적인 시가 마지막 그의 생애를 장식하게 된 것이다.

이 어둠이 내게 와서 / 요나의 고기속에 / 나를 가둔다. / 새 아침 낮선 눈부신 땅에 / 나를 배알으려고

이 어둠이 내게 와서 / 나의 눈을 가리운다. / 지금껏 보이지 않던 곳을 / 더 멀리 보게 하려고, / 들리지 않던 소리를 / 더 멀리 듣게 하려고.

마치 까아만 비로도 방석 안에서 / 차갑게 반짝이는 異國의 보석처럼, / 마치 고요한 바닷 진흙 속에서 / 아름답게 빛나는 眞珠처럼……

—〈이 어둠이 내게 와서〉—

내가 받은 고난을 인하여 / 여호와께 불러 야되었삽더니 / 주께서 내게 대답하였고 /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삽더니 /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 큰 물이 나를 들렀고 /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 할 때에 /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삽더니 /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 주의 신전에 미쳤나이다.

—〈요나의 기도〉<sup>53)</sup>— (행 배열 : 필자)

〈이 어둠이 내게 와서〉는 구약성경 「요나서」의 비유를 자신에게 적용해서 신앙을 고백한 신앙 고백의 시다. 이와같은 고백은 결국 다형이 60년 대 후반에 들어와 神에게 회의를 느낀 나머지 의도적이든 필연적이든 간에 神을 잃은 고독이라고 선언했던 정신적인 의식구조가 변모하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그의 지나온 생애를 〈어둠〉에 비유해서 그 〈어둠〉은 구약의 선지자 「요나」에게 새로운 기적을 통해 더욱 굳건한 믿음을 허락한 것과 같이, 자기 자신에게 닥친 〈지금껏 들리지 않던 소리를〉 〈더 멀리 듣게 하려고〉 〈밖음으로 볼 수 없던〉 〈나의 눈을 비로소 뜨게〉한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제 후기시에서 고독의 추구를 위해 자취를 감추었던 이 〈어둠〉의 시

53) 「구약성경」, 요나서 2: 2-9.

어는 다시 다형이 신앙의 세계로 방향전환을 함으로 말미암아 활발하게 그의 시 속에 투영되고 있다. 이것은 그의 기독교 원죄의식의 심상인 <어둠>이 시의 주체인 시인의 정신이 신앙적으로 변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자연현상으로 볼 수 있다.

당신의 빛자욱에선/꽃이 피어 사랑의 꽃 피어, /따 끝에서 따 끝까지/사랑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열렸읍니다.

당신의 못자욱은/우리를 더욱 당신에게 못박을 뿐/더욱 얽매이게 할 뿐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덤 밖/은 천하에 계십니다. 충만 하십니다!

해마다 四月의 훈훈한 땅들은/밀알 하나이 썩어/다시 사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이 파릇한 새 생명의 눈으로……

—<부활절에>—

이 시는 다형의 他界하기 직전의 작품으로 최후의 발표작이다.<sup>54)</sup> 2연에서 우리 인간의 原罪에 대한 참회를 엿볼 수 있다. 지금까지 原罪 의식에서 고통하던 한 시인이 이제 그 원죄를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神 앞에서 참회하고 있는 경건한 신앙인의 자세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4·5연에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이 죄의 세상은 구원받았음을 의치면서 이제 예수의 그 숭고한 사랑과 그 사랑이 은천하에 가득차 있다는 신앙의 돈독함을 보여주고 있다.

<죽어서도 무덤 밖에 있던> 내가 <영혼의 옷마저 벗어 버린다>고 선언함으로써 불완전하고 불투명했던 영적인 접테기를 비로소 고독이란 자기 세계에 정착시켰던 다형이 이제 그 고독의 용광로를 거쳐서 <당신은 지금 무덤 밖 은 천하에 계십니다. 충만하십니다!>라고 철저하게 神에게 귀의한 모습으로 신앙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神이 무덤밖으로 나왔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기독교가 표방하는 최고 최대의 구원인 復活을 상징하는 것으로써 죽음을 초극한 현상이다.

역설적이지만 기독교 시인으로 불려왔던 다형의 전 작품세계를 훑어볼

54) 「한국문학」 1975년 4월호에 실림.

茶兄 김현승은 1975년 4월 10일 별세하심.

때 기독교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활이란 주제를 그의 시에서 사용한 예<sup>55)</sup>는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다.

神에 대한 회의와 거부와 반항을 수없이 되풀이했던 가장 인간적인 시인이 이제 기독교의 최고의 구원인 부활을 믿는 단계에 이르는 가장 신앙적인 시인이 되기에는 이와 같이 많은 정신적 방황을 겪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인지도 모른다.

어쨌든 <무덤밖>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그의 전 작품세계에서 꾸준히 나타났던 <어둠>이란 시어는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다.

지금까지 그의 전 생애 가운데서 꾸준히 업습해 왔던 이 기독교의 원죄 의식이 이제 그가 부활을 믿는 최고의 신앙적인 단계에 이르러서는 말끔히 가셔진 것이다.

#### IV. 결 론

지금까지 茶兄 김현승 시인의 傳記的 측면과 그의 문학의 전개과정 및 변모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그의 詩作品에 미친 종교적인 사상의 특징을 고찰해 보았다.

여기서 필자는 김현승 시의 특징을 나타내는 心象 가운데 <어둠>의 詩語를 분석함으로써 그의 詩的 遍歷을 다시 정리해 보았고 그의 시 작품의 내용 속에 담긴 기독교 사상과의 연관성을 추출해 내었다.

먼저 茶兄 김현승 문학의 시적 편력을 四期로 구분하였다.

초기는 데뷔 작품을 비롯한 「새벽교실」에 수록된 순수한 초기 작품들로서, 이 시기의 작품 내용의 특징은 자연과의 친화에 의한 발랄한 상상과 청순한 동경의 세계를 노래했는데 작품의 저변에는 민족을 위한 기독교 사상이 깔려 있음을 간과할 수 없었다.

중기는 「김현승 詩抄」 「응호자의 노래」에 실린 작품들을 중심한 그의

55) 이전에 단 1편의 시를 1963년 4월 8일자 크리스찬 신문에 「復活節」라는 제목으로 발표했음. 그러나 이 작품이 그의 시집에 수록된 것은 의도적인지 또는 다른 이유가 있는는지 모르지만 의미가 있다고 여겨짐.

시 세계의 모색기로서, 작품의 특징은 내적으로는 슬픔을 詩化하여 외롭고 겸허한 기도와 신앙적인 가을의 시를 남겼고 외적으로는 기독교 정신을 기조로 한 사회 정의가 사변적이며 웅변조로 두드러지게 나타난 시기다.

후기는 본격적인 고독 추구를 위한 「절고한 고독」 「절대고독」에 실린 작품들을 중심한 그의 정신적 절정기로서, 작품의 특징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되 순수한 인간으로서의 고독의 세계를 추구한 시기였다.

신앙기는 「날개」와 「마지막 지상에서」에 실린 작품들을 중심한 그의 神에의 절대 귀의 시기로서 작품의 특징은 기독교의 절대 신앙에 의지한 시기였다.

즉 그의 시적 변모과정을 기독교 사상과 연관시켜 볼 때 초월자인 神으로부터 태어난 한 시인이 그 神의 영역을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치다가 다시 그에게로 돌아 갈 수 밖에 없었던 독실한 신앙을 가진 기독교 시인으로 변모되어 갔음을 알 수 있다.

다음 다형이 즐겨 사용했던 〈어둠〉을 비롯한 몇몇 詩語들을 분석했던 바 그의 기독교 사상과의 연관성 있는 다음 몇 가지의 사실을 추출해 내었다.

1. 〈어둠〉이 전체 시의 50% 이상의 작품에 나타났다는 것은 茶兒詩가 기독교의 원죄의식을 인식한 가운데 출발했으며 이 〈어둠〉은 원죄의식을 항상 상기시키는 詩語로써 茶兒詩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2. 초기시에 반영된 그의 기독교 사상은 불행과 억눌림에 처해 있는 우리 민족의 밝은 미래를 위한 희망적인 〈새벽〉 〈아침〉을 노래했다.

3. 중기시에 반영된 그의 기독교 사상은

첫째, 〈슬픔〉을 詩化한 〈신앙〉적인 〈가을〉의 시가 많이 나타났다.

둘째, 個性이 소유한 자아의 內的 고뇌를 나타낼 때도 궁극적으로는 神의 구원을 기원하는 방향으로 순화시켰다.

4. 후기시에서는 단단한 〈보석〉과 같은 〈고독〉의 세계를 추구했다는 것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고독〉도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神에게로 더 완전히 귀의하고 싶은 다형의 기질적인 소산이었다.

5. 신앙기 시에서는 가장 인간적인 시인이고자 했던 다형이 이제 기독교의 최고의 구원인 <부활>을 믿는 단계에 이르는 가장 신앙적인 시인으로 변모함으로써 <어둠>이란 詩語는 그 존재가치를 잃어버리고 서서히 사라져 가고 있다.

### 참 고 문 헌

#### <시집, 산문집>

- 金顯承 : 시집 「김현승 시전집」 (관동출판사, 1974)  
 // : 시집 「마지막 지상에서」 (창작과 비평사, 1975)  
 // : 「한국 현대시 해설」 (관동출판사, 1975)  
 // : 산문집 「고독과 시」 (지식산업사, 1977)

#### <논 문>

- 趙演鉉 : 김현승, 「한국 현대 작가론」 (문명사, 1970)  
 김현·김윤식 : 김현승, 「한국 문학사」 (민음사, 1973)  
 金宗吉 : 견고애의 집념, 「진실과 언어」 (일지사, 1974)  
 洪起三 : 김현승론, 「상황문학론」 (동화출판공사, 1974)  
 范大鎔 : 시적고독, 「현대 시학」 69호 (1974. 12)  
 金海星 : 김현승론, 「한국시론」 (진명문화사, 1975)  
 崔夏林 : 수직적인 세계, 「창작과 비평」 36호 (1975. 여름)  
 金允植 : 신앙과 고독의 분리문제, 「한국 현대시론 비판」 (일지사, 1975)  
 金柱演 : 퓨리탄의 주관과 정관, 「나의 칼은 나의 작품」 (민음사, 1975)  
 鄭泰榕 : 김현승론, 「한국 현대 시인론」 (어문각, 1976)  
 李盛夫 : 사랑의 실체, 「창작과 비평」 39호 (1976. 봄)  
 —— : 김현승 선생의 생애와 문학, 「고독과 시」 (지식산업사, 1977)  
 趙載勳 : 다형문학론 I, 「승전어문학」 제 5집 (1976)  
 安洙環 : 다형문학과 기독교, 「시문학」 68·9호. (1977. 3. 4)  
 朴利道 : 다형문학과, 「승전어문학」 제 6집 (1977)  
 張伯逸 : 원력을 끌고가는 고독, 「한국 현대 문학론」 (관동출판사, 1978)  
 金鍾哲 : 견고한 것들의 의미, 「사와 역사적 상상력」 (문학과 지성사, 1978)  
 李仁福 : 김현승, 「한국 문학에 나타난 죽음의식의 사적연구」 (열화당, 1979)  
 金禹昌 : 김현승의 시, 「지상의 척도」 (민음사, 1981)  
 郭光秀 : 사라짐과 영원성, 「한국 현대 시문학대계 17」 (지식 산업사, 1982)  
 朴哲石 : 김현승론, 「한국 현대 시인론」 (학문사, 1982)

<단행본>

René Wellek & Austin Warren: 「Theory of Literature」 (Penguin Books, 1956)

폴·틸리히(정진홍역): 「기독교와 다른 종교」 (기독교서회, 1969)

Gerhard Friedrich, ed: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Wm. B. Eerdmans Pub. Co. 1971)

Jeremias, J: 「New Testament Theology」 (Scribner's & Sons, 1971)

金榮秀: 「기독교와 문학」 (예원각, 1973)

김희보: 「한국 문학과 기독교」 (현대사상사, 1979)

키에르케고르 (孫載駿 역): 「죽음에 이르는 병」 (삼성출판사, 1982)

金竣五: 「시론」 (문장사, 1982)

梁沅容: 「한국 근대시 연구」 (삼영사, 1982)

한국 시인협회편: 「나의 시 나의 시론」 (신홍출판사)

<기 타>

신·구약 성경

文元閣刊: 한국 문학사전 (1973)

李商燮: 문학비평 용어사전 (민음사, 1976)

현대문학, 월간문학, 문학사상, 한국문학, 현대시학, 시문학, 창작과 비평外 월간잡지 다수.